시장에 가면~

시장에는 사람 사는 맛과 멋이 녹아있다. 볼 것도 들을 것도 맛 볼 것도 많다. 사람 구경하는 것만큼이나 재미진 별미 찾기. 지역의 풍미가 담긴 시장의 별미들을 만나보자.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장터 먹거리'.

4대째 떡을 빚고 있는 수원 못골시장의 옛고을떡방

대구 서문시장 명납작만두와 유부주머니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부산어묵과 물떡꼬치

부산 국제시장 BIFF 거리 씨앗호떡

수원 못골시장의 형형색색 찐빵

◇부산의 별미 총집결, 국제시장 먹자골목

해방 후 '도떼기시장'으로 출발했던 국제시장은 부산 최대의 만물 시장으로 성장했다. 국제시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먹자 골목이다.

아리랑거리를 중심으로 비빔당면 골목과 팥빙수 골목, 떡볶이 골목이 모두 이곳에 있다.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서도 소개된 비빔당면과 충무김밥, BIFF 거리의 씨앗호떡은 가장 인기 있는 메뉴다.

부산에서 맛볼 수 있는 밀면과 완당도 국제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부평동 족발 골목에서 가장 인기 있는 냉채족발도 그냥 지나치면 섭섭하다.

깡통시장과 먹자골목에서 두루 파는 유부전골도 입맛 당기는 부산의 별미다. 광복로 뒷골목 고갈비 골목은 쇠락했지만, 이름도 정겨운 남마담집과 할매집에서는 여전히 그 옛날 추억의 맛을 팔고 있다.

◇펄떡이는 서해의 싱싱함이 가득, 서천특화시장

지난 2004년 문을 연 서천특화시장은 수산물동, 일반동, 농산물동, 노점동으로 구성되었다.

수산물은 물론 일반 잡화나 청과를 파는 곳도 있다.

서천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수산물동이 가장 붐비지만, 입점한 상점 수로 따지면 청과류 매장이 수산물 매장보다 배 가까이 많다.

어찌됐든 서천특화시장 하면 역시 수산물이다. 홍원항, 마량항, 장항항이 지척이니 늘 싱싱한 해산물이 넘쳐나고, 그 해산물을 맛보려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굳이 시장까지 발걸음을 하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고 정이 담긴 덤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여행자에게도 남는 장사이다.

◇1만 상인의 삶이 담긴 맛있는 시장, 대구 서문시장

대구시에는 크고 작은 전통시장 40여 개가 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은 1600년경에 시작된 서문시장이다.

서문시장의 대지 면적은 3만4943㎡이고 상인 수만 1만여 명에 달한다.

서문시장에는 배고픔을 달래주는 음식이 많다. 먹자골목을 형성하는 칼국수와 보리밥, 얄팍한 만두피 속에 당면을 넣은 납작만두와 삼각만두, 굽기 바쁘게 팔리는 호떡, 콩나물과 어우러져 매콤하고 시원한 맛을 내는 양념어묵, 당면으로 속을 꽉 채운 유부주머니 전골 등이다.

해질 무렵이면 삼사오오 모여 술잔을 기울이기에 좋은 칠성시장 장어 골목과 석쇠불고기로 유명한 족발 골목이 부적부적해진다.

◇신선하고 다양한 맛이 있는 수원 못골시장

수원 팔달문 인근에 있는 못골시장. 이 시장은 200m도 안 되는 골목에 87개 점포가 밀집해 있어서 발디딜 틈 없이 분주하다.

못골시장은 지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 프로젝트' 덕분에 지금의 유명세를 타고 있다. 사고파는 시장의 기능에 문화의 공간, 상인과 손님이 소통하는 공간이 되기 위한 노력을 더했다.

못골시장은 반찬, 정육, 생선 등을 주로 판매하는 시장이다. 그만큼 다양한 식품을 만날 수 있다. 생선 가게, 채소 가게 할 것 없이 상인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먹거리도 다양하다. 칼국수와 녹두빈대떡이 유명한 집, 밤·단호박·완두콩·강낭콩·서리태 등이 가득 든 영양 백설기가 맛있는 떡집, 울금 가루와 녹차, 다양한 견과류를 넣어 만드는 울금호떡 등이다.

◇구수한 맛과 낭만, 춘천 낭만시장

춘천 낭만시장에는 서민의 삶과 낭만이 깃들어 있다. 춘천 중앙시장에서 이름이 바뀌며 새롭게 단장됐지만, 전해지는 사연과 소박한 풍취는 예전 그대로다.

낭만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이주해온 피란민과 인근 서민이 생필품을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버팀목으로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물건과 약사리고개를 넘어온 농산물이 한자리에 모이던 곳이다.

50년을 넘어선 가게들이 아직도 시장 곳곳에 남아 있다. 내장 골목, 닭집, 국숫집 등도 대를 이어 구수한 맛을 지켜간다.

낭만시장은 단순한 시장에서 벗어나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광장으로 탈바꿈했다. 시장 구석구석에 미술 작품이 걸리고 벽화가 그려졌으며, 콘서트가 열리기도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랜 시간 대구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숯불구이집

춘천 낭만시장 내장골목 입구 벽화

골목골목마다 별미메뉴 '부산 국제시장' 싱싱한 해산물 맛보려면 꼭 '서천 특화시장' 배고픔 달래주는 음식 가득 '대구 서문시장' 1년 내내 문전성시 이루는 '수원 못골시장' 서민의 삶과 낭만이 깃든 '춘천 낭만시장'

다 먹고 싶네

보약, 홍삼은
북교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성역 광송간도로 한일파이프 새우리병원 북교당 한약방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 주 환